

# 오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내일로

## 제 10회 창립기념 등산대회

ESCO협회는 4월 25일 관악산에서 창립10주년 기념산행을 개최하였다. 이범용 ESCO 협회장 및 임원, 회원사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을 향한 산행을 시작했다. 정상까지 2시간 정도 예상되는 코스를 따라 참가한 ESCO인들은 각자가 마음에 품은 목표를 생각하며 다시 자신감을 얻고 생동하는 기회로 삼았다. 등산이 끝난 뒤 함께한 만찬의 시간까지 'GREAT ESCO'를 만들어내는 협회인들의 하루를 소개한다.

### 정상을 향한 ESCO인의 도전

긴 가뭄을 해소하는 봄비가 내려 행사 전날까지 개최 여부를 의심하게 했던 날씨였다. 하지만 다행히 산행 당일에는 우려를 씻어내고 비는 멈추고 흐리고 약간 쌀쌀한 바람마저 불었다. 그렇다고 산행을 멈출 ESCO인들이 아니다. 오히려 흐린 날씨에 찬 기운 탓에 관악산을 찾은 등산객이 적어서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었다.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나누는 ESCO인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우정과 조화를 일구어 내며 등산을 시작했다.

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도읍지로 정할 때 건축해서 곤란한 상황에 대처했다고 전해지는 연주암이 1차 집결지였다. 산행을 시작하는 초입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로수를 따라 걸어가는 순탄한 길이 펼쳐졌다. 10년 전 새로운 희망으로 ESCO사업이 시장을 넓히며 대두하던 시간과도 닮아 있었다. 녹색 미래를 향해 신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모습들이 생각났다.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ESCO인들은 이날만큼은 어깨를 나







란히 하며 산길을 올라갔다. 협회에서 나눠준 하늘색 모자를 쓰고 걸어가는 회원들의 모습은 보기 좋은 풍경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ESCO 기술과 프로세스를 마련해 전사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수준을 세계적으로 도약시킨 ESCO인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ESCO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시장에 공감대를 얻어내고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해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ESCO의 GREEN GROWTH는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ESCO는 급변하는 시장환경 하에 생존과 위기 극복을 넘어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고효율 저비용의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ESCO 사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ESCO인들이 이번 산행을 통해서 각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성장률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목표는 달라도 ESCO 사업이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사업으로 안정화와 전성기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으리라고 짐작해본다.

1차 집결지에 모인 ESCO인들의 이마에는 추운 날씨에도 땀이 흘렀다. 관악산은 서울 시내에 있는 산 중에서도 험한 산세를 자랑한다. 특히 정상까지 바위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경을 집중하고 걸어야 한다. 평소엔 체력관리에 힘쓰며 내

## INTERVIEW



“회원사들의 화합과 우정이 만나는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범용 ESCO협회 회장

“벌써 ESCO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이 세월 동안 ESCO도 에너지절감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선배 임원들의 뒤를 따라 저 역시 ESCO의 발전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협회 식구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사 여러분들도 단합하고 ESCO 시장이 지금보다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10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정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ESCO의 발전을 이루는 파트너로 자리하겠습니다.” 최동규 ESCO협회 부회장

“2009년 협회 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이번 창립기념산행이 저에게 더욱 뜻깊게 받아집니다. ESCO협회 발전을 위해서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 한파로 많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기에 주저 앉지 않고 '기회를 위기삼아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뛰어난 에너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파트너로 항상 협력하며 나아갑시다. ESCO 협회 여러분, 정상에서 만납시다.”



“만나면 행복해지는 ESCO협회가 되겠습니다” 고근환 ESCO협회 사무국장

“ESCO협회가 출범하고 다사다난한 10년을 보냈습니다. ESCO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협회 회원사가 함께 협력하고 우정과 단결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날씨 때문에 90여명의 회원밖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알찬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관악산의 품모처럼, 숲을 이루는 나무처럼, 회원사들에게 그늘이 되고 열매가 되는 ESCO협회가 되겠습니다.”

실을 다진 ESCO인들은 자기 앞에 닥친 바위길을 순탄하게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숙원일 것이다. 준비해온 사람만이 쉽게 정상에 오르듯이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하고 견고히 해온 ESCO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힘든 등산 끝에 정상에 올라 숨을 고르며 성공의 메아리를 세상을 향해 외치는 기쁨을 모든 ESCO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 혁신을 향한 ESCO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효율 기술로 ESCO의 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협회의 가족들은 혁신을 통해 진화하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과 공정한 비즈니스 매너로 함께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ESCO인은, ESCO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